

슈램스버그가 쏘아올린 스파클링

“AI 능력·한계 정확히 파악 올바른 미래 맞이해야”



안상미 기자

Why, wine

(74) 美 슈램스버그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과 200년이 넘게 노하우가 쌓인 프랑스 전통 샴페인의 맛을 따라잡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의회 연설에서 1960년대가 지나가기 전 달에 인간을 착륙시킨 뒤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겠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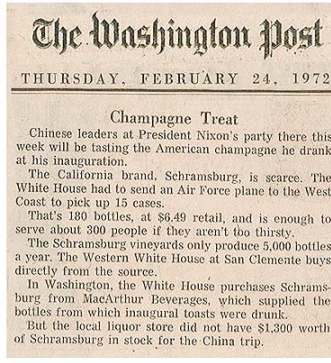
달 탐사 연구가 한창이라 미국 사회 전반에 도전정신이 넘쳐나던 그때, LA에서 로켓 부품 회사를 운영했던 잭과 제이미 데이비스 부부도 도전에 나선다. 샴페인 애호가였던 그들답게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전통 샴페인 방식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기로 한 것.

케네디가 그랬던 것처럼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는 도전이었다. 커다란 탱크에서 발효와 숙성을 모두 끝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샴페인 방식은 1차 발효가 끝난 와인을 일일이 병에 담아 2차 발효를 시킨다. 병 안에서 효모가 복합적인 향과 풍미를 만들어내고, 거품의 크기와 지속성도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전까지 미국에선 샴페인 제조방식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곳은 없었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과 같이 잭과 제이미 데이비스 부부의 와이너리 슈램스버그도 ‘블랑 드 블랑’을 내놓으며 전통 샴페인 방식으로 만든 미국 스파클링 와인의 시



미국 닉슨 대통령(왼쪽)과 중국 주은래 총리가 1972년 베이징 회담에서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 1969’으로 ‘평화를 위한 축배(Toast to Peace)’를 들고 있다. /나라셀라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왼쪽), ‘슈램스버그 블랑 드 누아’.

작을 알렸다.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 1965’는 미국에서 전통 샴페인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와인이다.

와인을 단순히 제조방법으로만 높이 평가할 수 없을 터, 슈램스버그가 미국을 넘어 프랑스 샴페인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었던 것은 최초를 넘어 최고를 지향했던 데 있다. 슈램스버그는 70개가 넘는 포도밭들을 통해 포도를 조달하며, 그로부터 만드는 베이스 와인이 250개 이상에 달한다. 그 베이스 와인을 다양하게 섞어 미국 고급 스파클링 와인의 교과서가 됐다.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것은 1972년 건배주

로 쓰이면서다.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국 주은래 총리는 베이징회담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Toast to Peace)’로 슈램스버그 와인을 사용했다. 평화를 위한 와인이란 별명을 얻은 것은 물론 백악관 만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블랑 드 블랑’은 청포도로만 만들었던 뜻이다. ‘슈램스버그 블랑 드 블랑’은 샤도네이 100%로 만드며, 병 속에서 효모와 함께 3년간 숙성해 출시한다. 매우 우아하고도 은은한 감귤과 복숭아, 효모, 구운 아몬드 등의 복합적인 아로마를 느낄 수 있다.

‘슈램스버그 블랑 드 누아’는 1967년 첫 선을 보였다. ‘블랑 드 누아’는 적포도의 껍질을 벗기고 과육만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을 말한다. 붉은빛이 배지 않는 섬세한 압착과 적정 산도의 보전, 탄닌 유입의 최소화 등 역시 세심한 정성을 필요로 한다.

‘슈램스버그 블랑 드 누아’는 피노누아에 샤도네이를 섞어 햇살을 담은 과실미가 그득하다. 잘 익은 복숭아와 살구, 딸기 등의 향이 풍부하며, 구조감이 여운으로 잘 이어진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한국생산성본부 북클럽 개최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 강연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AI)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AI의 능력과 한계가 뭘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올바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는 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KPC) CEO 북클럽에 참석해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물체인식, 바둑대회, 주식투자, 변호사 업무 등의 일처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며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감에 따라 지능적 업무의 자동화,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사람과 같은 상호작용의 기술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2017년 600명이었던 주식 트레이더를 2명으로 줄이고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000명을 개발자로 두고 있다. 당노성 망막증 진단이나 유방암 감지 등은 아주 빠른 시간에 전문의보다 정확하게 해낸다.

AI가 적용되는 분야도 확장되어 그림과 글쓰기 등 창작 영역까지도 AI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AI가 초상화를

그리거나, 작가의 화풍을 학습시켜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식이다. 2018년 AI가 그린 초상화가 미국에서 5억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GPT2는 글의 주제를 정해주면 15억개의 모델과 800만개의 웹페이지를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써낸다.

김 교수는 “AI는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라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인지기능을 갖춘 시스템 ▲자연언어로 소통하는 시스템 ▲의사결정과 행동을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시스템 ▲기계학습을 하거나 그 결과를 사용하는 시스템 ▲시스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

AI의 약점도 지적했다.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편견이 그대로 투영되고, 가정 상황에 답을 할 수 없고, 환경에 지나치게 예민한 문제 등이다. 김 교수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되는데 데이터 속에는 편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도 편견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AI에 흑인 사진을 보여주면 고릴라로 인식하는데 이는 모든 데이터가 백인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김진형 중앙대 석좌교수가 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KPC) CEO 북클럽에 참석해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혁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KPC

현대차 정몽구재단-고대의료원, 라오스 의료사업 추진

‘온드림 실명예방’ 사업 협약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과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라오스 보건부 지원을 위한 해외 의료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고대의료원은 이날 ‘라오스 온드림 실명예방’ 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라오스 보건부와 협력해 현지 안보건의료인력 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백내장 등 실명예방 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고 해외 자원봉사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과 김영훈 고대 의료원 의부총장은 라오스 지역의 안보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라오스 온드림 실명예방 사업은 2022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업비 3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재단은 검진을 통한 발견과 치료로



4일 고려대의료원에서 권오규 재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영훈 의료원 의부총장이 ‘라오스 온드림 실명예방’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실명 예방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 해외 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실명예방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라오스와 네팔 지역 등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라오스 온드림 실명예방 사업은 현지 안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통한 수혜국의 중장기적 역량 강화가 목표다. 라오스 자체 안보건의료인력

을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라오스 안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라오스 정부의 안과 전문의 양성 계획에 발맞춰 안과 전문의, 일반 안과의사 등 의료인력 수련 과정 교육비를 지원한다. 보건 정책 관리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도 시행해 다양한 안질환 임상 케이스와 진료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전쟁기념관 ‘랜선 문화나들이’ 행사

온라인 글짓기대회 등 세가지 구성

전쟁기념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쟁기념관 호국보훈의 달 랜선(LAN 선) 문화나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추진한다.

전쟁기념관은 2일 ‘온라인 글짓기 대회’, ‘온라인 그림 대회’, ‘손 글씨 SNS 챌린지’ 등 세 가지 구성으로 랜선 문화나들이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인 ‘손 글씨 SNS 챌린지’는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참가방법은 순국선열, 참전용사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 글씨로 쓴 뒤, 인증샷을 찍어 ‘#손글씨감사챌린지’, ‘#순국선열’, ‘#참전용사’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고 전쟁기념관을 팔로잉 하면 된다.

한국전쟁(6.25) 발발 70주기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시민들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로, ‘손 글씨 SNS 챌린지’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한다.

코로나 19로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됐던 현충일 글짓기·그림 대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발맞춰 온라인 행사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현충일 당일 진행했던 기존과 달리, 6월 말까지 참가가 가능하다.

글짓기 대회는 그동안 어린이 대상으로 한정되어 왔던 틀을 깨고,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멋진 한 문장 만들기’로 개최한다.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 주제를 확인 한 후, 댓글로 응모할 수 있다. 주제는 주 1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심사를 통해 전쟁기념관장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형철 기자 captinm@